

박영선 “반값아파트”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누가 집값잡고 주택문제 해결할까, 주택공급·재건축 재개발 용적율 완화 비슷…

朴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청년무이자, 吳 규제혁파·상생주택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 승인 2021.03.25 21:09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되면서 이번 선거 정책대결의 최대 이슈인 집값 안정화 정책(주택정책) 경쟁을 어떻게 벌일지 주목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한 주택정책을 보면, 집값 안정의 해법은 두 후보 모두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율을 완화하는 방안에서 일부 유사했지만, 박 후보는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에, 오 후보는 도시계획규제 혁파에 무게를 뒀다.

우선 박영선 후보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주거 대전환 : 집 걱정 없는 서울’로 내세우면서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1인, 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확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 등 재건축 재개발 쪽도 허용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밖에 박 후보는 청년 등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자금 지원 등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21분 생활권’을 위한 ‘직장-주택 근접’이 가능하려면 주택의 추가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지은 지 30년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한 ‘반값 아파트’, 강북 역세권 저층 주택들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후보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 및 태릉 골프장 택지 조성 등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녹지공간도 함께 늘려야지 있는 녹지마저 없애는 것은 쉽게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 1 대통령 백신 바뀌치기
- 2 1강이었던 안철수 ‘새?
- 3 송영길 “김어준 뉴스공
- 4 오세훈 “중증치매환자
- 5 손석희, JTBC 등기이

추천 콘텐츠

아케이드3(S) 반지

800,000원

골든듀

바로구매

D102Fashion 14K 18K 블루 스타 스...

COUPANG

바로구매

나 있을 땐 환한 조명 나 없을 땐...

3649%달성

Wadiz

편의하기

제주 오메기떡 30개 올래떡 72개 특별...

39,900원

Shoppingmall KR

에디터스 초이스

- 1 법원 “MBN 재승인 조
- 2 방송연설 10분에 700
- 3 “기업엔 13배 넘게 지
- 4 “잘못된 유튜브 보도
- 5 1강이었던 안철수 ‘새?
- 6 논란 피하려 정권원
- 7 미얀마에서 발행하는
- 8 문체부 조사에 “인권
- 9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 10 동아일보가 고소한 동



박 후보는 광진구 아차산자락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주거지 종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중곡역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을 확대할 뿐 아니라 능동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강북구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확대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종로구의 경우 블록단위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의도는 본격적으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해 오세훈 후보는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우선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를 위해 △서울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의 경우 7층이하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를 혁파하고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의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구역지정 기준완화로 재지정을 촉진해 10만호(연간 2만호 × 5년)를 확보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재개발을 중단하게 만든 ‘주거정비비수제’를 폐

영상의
만나는
LG소


동아

경남·부산·울산이 하나의 상

또 하나의 수
동남권 메가

MEGA

영남 광역버스
부산·울산·경남

전세 고속철도
부산·경남·울산

함께해요!
미래를 바꿀

지해 노후주거지 신규구역지정을 활성화(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하겠다고 주장했다.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일반분양물량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오 후보는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인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시장 시절 추진했던 장기전세주택의 시즌 II 개념의 ‘상생주택’을 통해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는 민간의 토지를 빌려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경동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훈 페이스북

두 후보 모두 1년짜리 보궐 시장이면서도 이 같은 주택 정책의 이행 기간은 모두 5년으로 적어내 1년 안에 모든 주택 공약을 실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원조달 방안의 경우 박영선 후보는 올해엔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해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오세훈 후보는 올해의 경우 모두 30억원을 추경안을 통해 사업검토 및 착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생주택 확대 공급은 5년간 총 7313억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 예산은 전체 총사업비(7조3127억원)의 5% 수준인 3656억원이라고 기재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5,000원 소액결제

☐ 10,000원 이상 자유결제

☐ 미디어오늘 정기구독

☐ 미디어오늘 정기후원

☐ 페이팔로 후원하기(해외독자)

후원하기

트윗

좋아요 54개



조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는 논쟁 중

- 1 ‘귀멸의 칼날’ 렌고쿠 교쥬로는 카미카제를 닮았다
- 2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악이라는 오명 씌워” 정권 작심 비판
- 3 “대학이 여관방이냐” 모교에서 비난받는 박형준
- 4 오세훈 “시장되면 ‘TBS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다’ 경고한 것”
- 5 “벌 받는 자세, 고난의 겨울나무” 낯뜨거운 윤석열 띄우기

댓글 2

댓글입력

✓ 최신순 추천순

sdw 2021-03-26 09:46:00



사기도 작작쳐라.. 그랬음 진작 허경영뽑았다 이것들아.. 니들보다 허경영이 낫지..

답글쓰기

👍 1 🗨 6

장주원 2021-03-25 22:11:09



정책의 달인, 애민정신의 화신, 허경영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유치하게 두명만 보도해서 양자 구도로 가려고 하지 마라.
이젠 속이 다 보인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답글쓰기

👍 2 🗨 7

아케이드3(S) 반지

800,000원

골든듀 | Sponsored

[바로구매](#)

다향오리 1등급 훈제 오리 슬라이스

COUPANG | Sponsored

[바로구매](#)

“대학이 여관방이나” 모교에서 비난받는 박형준

4월7일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에 대해 동료 교수들이 “교수로서 본분보다 정치에 열중하며 학생과 대학을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왔음을 인정하고 사...

미디어오늘

드림하트2(남)2C 반지

2,420,000원

골든듀 | Sponsored

[바로구매](#)